

1950년대 <제주신보> ‘독자의 소리’ 지면 특성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최 낙 진**

- I. 서론
- II. 신문 ‘독자란’에 대한 문헌연구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논의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1950년대 제주지역에서 발간되었던 <제주신보>의 ‘독자의 소리’란을 통해 어떤 독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과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투고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으며, 투고자의 직업은 일반주민, 공직자, 학부형, 농민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투고자의 신상은 대부분 이니셜이나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또한 투고 주제는 교육, 사회, 행정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술 형식에서는 건의 혹은 제안 형식의 투고가 가장 많았고, 비판, 고발, 호소 등 다양한 형식의 글들이 확인되어 독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매우 분명한 어조로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문기사에 대한 피드백 차원의 독자 투고도 18건(15.7%) 확인되었다. 독자 투고의 대상은 행정당국에

* 이 논문은 제주도서관 개관 60주년 기념 세미나(2017.11.01)와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지역언론연구 세미나(2018.11.21)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2015년도 KCTV 제주방송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choinj@jejunu.ac.kr

대한 투고가 비교적 많았고, 이외에도 도민, 학교, 특정단체, 정치인 등 다양한 대상을 향한 의견 표명이 이루어졌다. 독자 투고는 주로 부정적인 어조를 띄었으며, 분량은 대부분 200자에서 600자 사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4·3 사건과 6·25전쟁을 겪은 1950년대라는 사회 혼란 속에서도 제주지역 신문 독자들이 신문을 열독하고, 각종 사회문제에 참여하였으며,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개진하는 주체성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1950년대 <제주신보>의 독자투고가 당시의 여론형성과 의견교환의 장이 되어, 부분적으로나마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1950년대, 제주신보, 독자투고, 여론형성, 공론장

I. 서론

뉴스 미디어는 오랫동안 중요한 공론장으로 간주되어 왔다.¹⁾ 특히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사설, 칼럼 등을 다루는 포럼 페이지(forum pages)는 역사적으로 공공 담론의 영역에서 중요한 공간을 제공해 왔다.²⁾

공론장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즉, 상호작용(interactivity)을 통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요르겐센(Wahl-Jorgensen)은 일반인들이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포럼 페이지를 ‘민주주의가 꽃 피는 곳’이라 주장했다. 덧붙여 텔레비전 토크쇼, 라디오 콜인 프로그램, 혹은 인터넷 그룹 토론 등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포럼이 있음에도, 특히 신문의 포럼 공간은 일반적으로 전문주제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다수의 지역사회 구

1) Habermas, J, “The public sphere: An encyclopedia article”, *New German Critique*, 3, 1974.

2) Hoffman, L. H. & Slater, M. D, “Evaluating public discourse in newspaper opinion articles: Values-framing and integrative complexity in substance and health policy issu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4(1), 2007.

성원들에게 도달한다고 보았다.³⁾ 특히 독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독자투고란'은 그들의 사상과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론장으로 여겨져 왔다.⁴⁾

우리나라에서 독자투고란을 처음으로 마련한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으로 알려져 있다.⁵⁾ 박용규 등⁶⁾에 따르면, 당시 독자들이 투고한 편지나 제보한 기사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투고한 내용 가운데 국민을 계몽하는 교육적인 내용은 '논설란'에 실렸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내용은 '雜俎欄'에 게재되었다.⁷⁾ 이후 1904년 창간된 <대한매일신보>는 '奇書' 혹은 '片片奇談'이라는 코너를 통해 독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다.⁸⁾ 또한 1920년에 창간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다양한 독자투고란을 운영해 왔으며,⁹⁾ 해방 이후인 1960년대에는 자사의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독자란'을 신설하였다.¹⁰⁾ 이후 1980년대 신문의 자율경쟁체제는 신문사들로 하여금 독자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독자투고를 적극 활용하게 만들었다.¹¹⁾ 이처럼 한국의 독자투고란은 독자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¹²⁾

더욱이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미디어는 상호작용을 가능하

3) Wahl-Jorgensen, K, "A 'legitimate beef' or 'raw meat?' civility, multiculturalism, and letters to the editor", *The Communication Review*, 70, 2004.

4) Hynds, E. C, "Editorial pages editors discuss use of letters", *Newspaper Research Journal*, 1, 1992.

5) 채 백, 『독립신문연구』, 한나래, 2006.

6) 박용규·정연구·유선영·문철수, 100년 전 이미 독자투고 게재. 『신문과 방송』, 4월호, 1996.

7) 조아라·이건호, 「한국 중앙 일간지의 독자투고 특성 연구: 1997년-2009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5, 2011.

8) 전은경, 「<대한매일신보>의 <편편기담>과 '쓰는 독자'의 출현」, 『한국현대문학연구』 30호, 2010.

9) 강신철, 『신문의 독자투고와 공론장적 성격: '언론개혁'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10) 조아라·이건호, 앞 논문, 2011.

11) 강신철, 앞 논문, 2001.

12) 조아라·이건호, 앞 논문, 2011.

게 함으로써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지금은 거의 전 세계의 뉴스 웹사이트들이 독자의견 코너를 활용하고 있다.¹³⁾ 신문사 또한 다매체 다채널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신문기사에 대한 피드백 역할과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자란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다.¹⁴⁾ 수용자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저널리즘 측면에서 독자란의 신설은 독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신문에 반영할 수 있고, 여론 형성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¹⁵⁾ 또한 독자란에서 다루어진 사회적 이슈들이 언론사에게 취재 소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¹⁶⁾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자란은 국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소통의 창으로 기능하기도 한다.¹⁷⁾ 나아가 독자란은 다양한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과 생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회와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한편, 1950년대 제주는 4·3사건과 6·25전쟁 등의 여파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동시에 신문과 특히 방송국이 생기면서 제주가 전국에 편입된 시기이기도 했다. 또한 1952년에는 초대 읍면의회 선거와 도의회의원 선거 등이 치러지고, 제주도내 유일한 대학인 제주대학교가 설립되는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안팎으로 새롭고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던 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주신보>는 1950년대 ‘독자투고’란을 신설하여 독자들의 의견을 받기 시작했

13) Canter, L, “The misconception of online comment threads: Content and control on local newspaper websites”, *Journalism Practice*, 7(5), 2013.

14) 강경국·윤희각, 「지방일간지 독자투고 분석을 통한 경찰의 對 언론홍보 개선 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권 6호, 2018.

15) 강경국·윤희각, 앞의 논문, 2018.

16) 우병동·임양준, 「중앙일간지와 지방일단지의 독자투고 비교연구: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광주일보, 부산일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2006.

17) 이은희, 『한국 신문의 독자란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다. 이는 미디어 수가 많지 않고, 신문 구독자가 제한적이었던 1950년대 당시 제주사회를 고려할 때, 획기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전후 <제주신보>의 투고란인 '독자의 소리' 지면 분석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안들에 대해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표명했는지 그 특성을 파악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독자의 소리'의 내용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넘어, 이를 통해 1950년대 전후의 제주를 제한적이거나 참여다툼으로써 당시의 제주사회와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II. 신문 '독자란'에 대한 문헌연구

1. 전통적인 신문의 독자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매체의 변화로 필자와 독자 사이의 간격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 언급한 벤야민은 '독자투고'란에 주목했다.¹⁸⁾ 역사적으로 '독자란(Letters to the editor / Letters section)'은 “일반 대중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창구”,¹⁹⁾ “민주주의 체제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공적 포럼”으로 강조되어 왔다.²⁰⁾ 다양한 독자가 신문에서 강조된 주제들에 대해 단순한 반응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의 걱정거리와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공적인 공간이라는 것이다.²¹⁾

18) Benjamin, W, *Kleine geschichte der photographie*. 1931. 최성만 (역),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길, 2007, 129쪽.

19) Kapoor, S. & Botan, C, “Studies compare how editors use letters”, *The Masthead*, 44(1), 1992, p.5.

20) Hynds, E. C, “Editors at Most U.S. Dailies See Vital Roles for Editorial Page”, *Journalism Quarterly*, 71(3), 1994, p.124.

21) Wahl-Jorgensen, K, “Understanding the conditions for public discourse: Four rules for selecting letters to the editor”, *Journalism Studies*, 3(1), 2002.

이처럼 ‘독자투고’는 독자가 신문이라는 미디어 공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자들은 소소하게는 독자란을 이용해 불분명한 기사, 오탈자, 잘못된 기사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하고²²⁾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른 개인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견제 기능을 수행하여²³⁾ 언론보도가 특정 집단이나 편집진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을 차단하기도 한다.²⁴⁾

편집자의 입장에서 독자란은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병동과 임양준은²⁵⁾ 독자란이 독자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독자란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주제는 심층적인 기획기사로 다뤄지기도 한다고 했다.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실리는 만큼 국민과 정책 당국자 간의 소통 창구가 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독자란이 독자와 국가 혹은 지방정부와 연결해 주는 ‘열려진 창’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²⁶⁾

한편, 독자란을 통해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합된 의견이 존재한다.²⁷⁾ 조아라와 이건호는²⁸⁾ 독자란이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 개인 혹은 이해집단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공개적으로 표현되고 공유되는 공간인 만큼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레이와 브라운(Gray & Brown)²⁹⁾은 독자투고가 국민들의

22) 윤석홍, 독자페이지 기능과 개선방안, 제26회 프레스토론회 자료집, 5월호, 1993.

23) 이경자, 독자란 의미와 기능, 『신문과 방송』, 1988년 9월호, 42-45, 1988; Raeymaeckers, K, “Letters to the editor: A feedback opportunity turned into a marketing tool an account of selection and editing practices in the Flemish Daily Pres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0(2), 2005.

24) 우병동·임양준, 앞의 논문, 2006.

25) 우병동·임양준, 위의 논문, 2006.

26) 이은희, 앞의 논문, 1994.

27) 임종섭, 「공중 프레임과 일간지 발행부수와의 관계: 미국 일간지의 독자 투고란 분석」,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8권 4호, 2010.

28) 조아라·이건호, 앞의 논문, 2011.

29) Grey, D. L. & Brown, T. R, “Letters to the editor: Hazy reflections of public opinion”, *Journalism Quarterly*, 47(2), 1970.

의견과 생각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확한 여론 측정을 위한 매우 훌륭한 도구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독자투고란이 유용한 수단이 되지만, 그들의 의견이 여론을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³⁰⁾ 독자투고자들이 일반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의 흐릿한 반영(hazy reflections of public opinion)”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³¹⁾ 일부 독자투고자들 또한 독자투고란이 여론의 풍향계라는 개념에 반대하기도 한다.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독자투고자들은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으며, 전문직 종사자들로, 신문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³²⁾ 이러한 논의들은 독자란을 통해 여론을 살펴볼 수는 있으나, 여론을 명확하게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독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공간인 만큼 독자란은 많은 독자들 사이에서 넓게 이용되어 왔다.³³⁾ 또한 독자란은 글을 심는 독자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 구독자에게도 널리 읽히는 코너이기도 하다. 힌드스(Hyndes)는 독자란이 신문 구독자 절반가량이 읽는 가장 인기 있는 코너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³⁴⁾ 독자투고를 통해 글이 실리기도 하지만 다른 독자들을 통해 읽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여론을 형성하면서 긍정적인 환류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견의 교환은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신문은 그러한 토론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³⁵⁾

30) Grey, D. L. & Brown, T. R, “Letters to the editor: Hazy reflections of public Opinion”, *Journalism Quarterly*, 47(2), 1970.

31) Wahl-Jorgensen, K, 2002.

32) Pasternack, S, *The open forum: A study of letters to the editor and the people who write the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71st, Portland, Oregon, July 2-5). 1988.

33) Bogart, L, *Press and public: Who reads, what, when, where, and why in American newspaper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1; Sigelman, L. & Walkosz, B. J, “Letters to the Editor as a Public Opinion Thermometer: the Martin Luther King holiday vote in Arizona”, *Social Science Quarterly*, 73(4), 1992.

34) Hynds, E. C, 1994.

하지만, 독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고 해서 모든 의견이 지면화되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신문사의 경우에는 그들이 받은 독자투고의 80%까지 수용하는 반면, 뉴욕타임즈와 같은 규모가 큰 신문사들은 독자들로부터 받은 독자투고 가운데 6% 미만만 출판한다.³⁶⁾

또한 요르겐센은 독자투고를 지면에 실을 것인지 여부가 관련성(relevance), 오락성(entertainment), 간결성(brevity), 권위(authority) 등 4개의 규칙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았다.³⁷⁾ 먼저 독자투고의 주제는 관련성 측면에서 독자들에게 유용하며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 즉, 공중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 안전, 환경, 교육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뤄야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독자가 많을수록, 효과가 직접적일수록 관련성은 높아지고,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³⁸⁾ 또한 독자투고는 오락적인 요소를 갖춰야 한다. 미국 Sun-Sentinel 신문의 독자란 편집장 킹슬리 가이(Kingsley Guy)는 ‘신문은 오락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지하는 문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독자란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유머가 없는(bland, boring, and humorless)” 내용을 넘어서서,³⁹⁾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독자란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⁴⁰⁾ 간결함은 말 그대로 독자투고의 분량을 말한다. 대부분의 독자투고는 300개 단어로 제한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편집자들은 실제 짧은 글이 긴 글보다 많은 관심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

35) Hoffman, L. H. & Slater, M. D, 2007; Wahl-Jorgensen, K, 2004.

36) Wahl-Jorgensen, K, 2002.

37) Ibid.

38) Brooks, B. S., Kennedy, G., Moen, D. R., & Ranly, D, *News Reporting and Writing*,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p.6-10.

39)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London, 1991,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2002.

40) Wahl-Jorgensen, K, 2002.

았다. 이러한 간결성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라는 신문 제작의 근본적인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마지막 규칙은 권위이다. 대부분의 편집자들은 “균형잡힌 독자란(balanced letters page)”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것이 의식적인 선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 경영의 구조에 의해 종종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⁴¹⁾ 권위는 비문을 거절하고 자유로운 스타일로 작성된 독자의견을 수용한다.

2. 상호작용 매체로서의 독자란

슈람(Schramm)은 신문의 독자투고를 매스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하나인 피드백(feedback)으로 규정하고, 여기에는 투고, 편집에 대한 항의, 투고에 대한 재투고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⁴²⁾ 이와 유사하게 파스킨(Paskin)도 미디어와 독자 참여와 관련한 일반적인 논의의 주제가 바로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라고 보았다.⁴³⁾ 윌리엄 등(Williams)은 상호작용을 ‘의사소통 과정의 참여자가 상호 담론에서 통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했다.⁴⁴⁾ 피드백 혹은 상호작용을 통해 편집자와 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순환적이며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그 영역과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초기의 상호작용 매체로는 무료 수신전화를 들 수 있다. 오코인(Aucoin)⁴⁵⁾은 무료 수신전화가 미디어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켰다고 보았다. 자신의 의견을 공공 토론의 장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많

41) Ibid.

42) Schramm, W, *The process and effect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5.

43) Paskin, D, “Say what? An analysis of reader comments in bestselling American newspaper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16(2), 2010.

44) Williams, F., Rice, R. E., & Rogers, E, *Research Methods and the New Media*. New York: The Free Press. 1988, p.10.

45) Aucoin, J, “Does newspaper call-in line expand public conversation?”, *Newspaper Research Journal*, 18(3), 1997.

은 신문독자들이 명확하게 글쓰기, 옳은 문법 사용, 편지 보내기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온 것과 달리, 전화로 보다 수월하게 그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의 신문사들은 독자들이 전화를 걸 수 있는 무료 수신전화를 설치하고,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하였으며, 독자들이 남긴 메시지는 대개 다음 날 신문에 익명으로 게재되었다.⁴⁶⁾

인터넷의 등장은 독자들의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했다. 사람들은 편집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음성, 동영상도 올리기도 한다. 독자들은 또한 신문독자 혹은 칼럼리스트에 의해 게재된 이야기들에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은 의견을 올리기도 한다.⁴⁷⁾ 이처럼 쌍방향 미디어의 발전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손쉬워지면서 시민들의 의견 개진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⁴⁸⁾

실제 많은 디지털 미디어 도구, 플랫폼 및 공간을 포함하는 인터넷의 발전은 공중의 심의 형태를 확대하고 심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담론의 전통적인 경계를 확장시킬 수 있고, 다양한 토론 방식을 통해 공적인 이슈들에 대한 보다 깊은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⁹⁾ 산타나(Santana)에 따르면,⁵⁰⁾ 미국의 상위 150개 신문 가운데 90% 이상이 뉴스 웹사이트를 통해 ‘독자 의견 섹션(reader comments sections)’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공간은 공공 토론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에 의해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⁵¹⁾

46) Aucoin, J, “Does newspaper call-in line expand public conversation.?”, *Newspaper Research Journal*, 18(3), 1997.

47) Paskin, D, 2010.

48) 구교태, 독자의 숨결이 느껴지는 신문으로 거듭나야, 『매일신문』, 26, 2009. 8.

49) Benkler, Y,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50) Santana, A. D, Online readers’ comments represent new opinion pipeline. *Newspaper Research Journal*, 32(3), 2011.

51) Vitak, J., Zube, p., Smock, A., Carr, C. T., Ellison, N., & Lampe, C, “It’s compli

이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우리는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온라인상에 토론 공간을 만들어 치열한 토론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공개적으로 청원운동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여론지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한 의견과 생각들이 순식간에 여론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⁵²⁾ 공론장을 효과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인터넷의 기능을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이들은 그 도전 요소들로, 1)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2)참여자 간의 무례함(incivility among participants), 3)대화자 간의 익명성(the anonymity of communicators), 4)토의의 분열(the fragmentation of deliberation), 5)개인에 의한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 by individuals), 6)토론의 균질화(the homogenization of discussion) 등을 들었다. 이러한 장벽으로 인해 인터넷이 하버마스의 공론장을 확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⁵³⁾

신문의 독자투고란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취재 주제를 얻거나 뉴스보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벤야민도 이러한 '독자투고'를 필자와 독자의 간격이 사라지는 즉, 대중매체의 확산 장치로 주목했다.⁵⁴⁾ 이처럼 뉴스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기여는 총체적으로 '시민 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자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문인 독자투고에 대한 국내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⁵⁵⁾

cated: Facebook user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2008 ele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3), 2011.

52) Albrecht, S, "Whose voice is heard in online deliberation? A study of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in political debates on the Internet",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9(1), 2006; Papacharissi, Z, "The virtual sphere", *New Media & Society*, 4(1), 2002.

53) Zamith, R. & Lewis, S. C, "From public spaces to public sphere rethinking systems for reader comments on online news sites", *Digital Journalism*, 2(4), 2014.

54) Benjamin, W, 1931.

3. 신문의 사료적 가치

19세기에 들어 책과 신문의 가격이 적절해지면서 인쇄물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졌고, 이러한 인쇄물을 통해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광범위하게 공유된 기억(shared memory)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특히 신문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해당 지역은 물론 세계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⁵⁶⁾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신문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매일같이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신문은 해당 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일의 기록들이 한데 모이면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 신문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틀리(Hartley, 1996, pp.32-34)⁵⁷⁾는 뉴스를 “근대성의 의미를 형성하는 행위(sense-making practice of modernity)”라고 보았다. 뉴스가 핵심적인 내러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집단기억을 위한 ‘저장고’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주로 저널리즘적 텍스트를 통해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서술 및 반응의 관점에서 해당 시대를 서술하기 때문이다.⁵⁸⁾ 이에 따라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당시의 시대와 상황을 이해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듯이 한 시대가 품어왔던 사회의 모습과 양식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특히 언어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새로운 단어들이 생성되고 소멸되기를 반복한다. 이처럼 단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는 동일한 사람이 쓰고 읽는다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단어가 항상 정확한 정보

55) 조아라·이건호, 앞의 논문, 2011.

56) Mayer-Schonberger, V, 2009.

57) Hartley, J, Popular reality. London: Arnold, 1996, 저널리즘학연구소 (역), 『저널리즘 핸드북』, 새물결, 2015.

58) McNair, B, Journalism and democracy. In K. W. Jorgensen & T. Hanitzsch. (Eds.),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2009. 저널리즘학연구소 (역), 『저널리즘 핸드북』, 새물결, 2015, 42쪽.

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와 문장들은 인간의 해석을 요구한다.⁵⁹⁾

언어에 대한 해석 또한 사회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독자들은 신문을 읽는 과정에서 뉴스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이에 따라 공유된 기억에 대한 인상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는 '외부적 기억(신문에 인쇄된 것)'과 독자들이 부여한 '주관적 연결과 주석(해석)'과의 결합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실제로 인쇄되어 있는 것과 그 내용이 개별 독자들에 의해 어떻게 이해되고 언급되는지의 결합을 말한다.⁶⁰⁾ 이렇게 공유된 기억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강력한 공동체에 속할 기회를 갖게 되고,⁶¹⁾ 자연스럽게 사회와 개인을 이해하게 된다.

한편, 앤더슨(Anderson)은 민족국가와 제국을 '상상의 정치공동체(imagined political community)'라고 정의했다.⁶²⁾ '인쇄자본주의(print-capitalism)'로 인해 인쇄자본가가 지역의 언어로 서적과 신문을 출판하여 판매, 보급하고, 이를 통해 공통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을 상상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달리 말하면, 민족을 "실제의 공동체"가 아닌 "상상의 공동체"로 본 것이다.⁶³⁾ 예를 들어, '철도'라는 사회변화 매체를 통해 근현대사를 조명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해석할 공간을 남겨두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옛 신문은 그 자체로 해석의 여지와 너그러움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직접적인 경험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는 세상과 현실을 이해하게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실버스톤(Silverstone)은 우리가 미디어의 매개 속에 살고 있으

59) Mayer-Schonberger, V,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2009, 구본권 (역)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2011, 62-63쪽.

60) Ibid.

61) Ibid.

62) Anderson, B, 1991.

63) 신용하,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한국사회학』 제40집 1호, 2006, 37-38쪽.

며, 미디어 없이는 타자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⁶⁴⁾ 미디어가 재현을 통해 일상의 현실을 걸러내고 틀 지움으로써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행위를 판단하고 상식을 형성하며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준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⁶⁵⁾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전후 <제주신보>의 ‘독자의 소리’ 지면 분석을 통해 투고자와 투고내용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과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성 측면에서 독자들의 의견에 대해 피드백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1. ‘독자의 소리’ 투고자(성별, 직업(신분), 신상 공개 형태)와 투고 내용(투고 주제, 서술 형식, 투고 대상, 투고 논조, 투고 분량)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독자의 소리’ 투고자에 따른 투고 내용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독자의 소리’ 투고 대상에 따른 투고 내용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제주신보> 신문기사에 대한 피드백 성격의 독자투고의 특성은 어떠한가?

64) Silverstone, R, 1999.

65) Silverstone, R, *Why Study the Media.?* London: Sage. 1999.[김세은 (역),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9쪽]

2. 연구대상

우리나라 근대신문의 효시는 1883년 10월에 창간된 <한성순보>지만, 본격적인 민간신문의 새 시대를 열고 근대적인 언론활동이 시작된 것은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 창간되면서부터다. 이 독립신문에는 한글판 총 발행 호수 776호 중 129개 호에 제주 관련 기사가 83건이 게재되었다. 제주 관련 광고도 46건으로 나타났다.⁶⁶⁾ 제주 관련 기사는 독립신문의 창간 정신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⁶⁷⁾ 또한 <대한매일신보>는 제주에 지사를 두기도 했다. 이 지사는 판매, 배달, 수금은 물론 지방통신까지 병행하여 일부 취재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⁸⁾ 이외에도 1926년 기자 15명이 참석한 제주기자단(주재기자) 창립⁶⁹⁾과 1945년 이전 신문들에 제주 구독자, 광고, 기사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주에서도 언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전까지 제주도에 본사를 둔 신문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주에서 국문으로 처음 발간된 신문은 1945년 10월 1일에 창간된 <제주신보(창간 당시 濟州民報)>이다.⁷⁰⁾ 이어 1952년 12월에 <탐라신

66) 이문교, 앞의 논문, 42쪽.

67) 독립신문 <창간사>에는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 없이 없고, 상하 귀천을 달리 대접 아니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을 위하여,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할 것이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예언하여 주려 함. …… 우리는 바른 대로만 신문을 할 터인 고로, 정부 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오.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펴 터이오, 사사 백성이라도 무법한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라고 밝히고 있다.

68) 최 준, 『한국신문사』, 일조각, 1968, 111쪽. 1907년 현재 대한매일신보 지사는 평양, 인천, 의주, 부산, 함흥, 개성, 대구, 원산, 해주, 정주, 제주성, 정읍, 장연, 고부 군산, 용천을 비롯한 31곳에 있었다.

69) 이문교, 『제주언론사』, 나남, 1997, 42쪽.

70) 제주신문사, 『제주신문 50년사』, 1995, 275쪽.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간된 신문은 1945년 7월 제주에 주둔한 일본군 제58군 사령부 주도로 창간된 일어신문 <제주신보>이다. 당시 제주에는 7만 5천여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미군기의 공습으로 육지부 및 일본과의 해상교통이 두절되자 자체적으로

보>가 주간으로 창간되었으나 운영난으로 1954년 2월에 폐간되었고, 1953년 10월에 주간으로 창간된 <영주시보>와 1959년 10월 주간으로 창간된 <제향시보>가 있었으나, 이 두 신문 모두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폐간되었다. 또한 1956년 5월에 <제민시보>가 창간되었고, 이 신문은 1960년에 제호를 <제민일보>로 변경하여 발행하였다.⁷¹⁾ 하지만 <제주신보>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이 발행한 1950년대 신문은 현재 거의 보관되지 않았으며,⁷²⁾ <제주신보>의 경우에도 결호가 많은 상황이다.⁷³⁾

<제주신보>는 1952년 1월 29일 ‘독자와 기자’란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⁴⁾ 어떤 취지로 시작했는지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독자 참여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반영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독자와 기자’란은 2월 17일자부터 ‘독자의 소리’로 제목을 바꾸어 운용되었다고 하나, 제주도서관에 보관된 <제주신보>에서 독자투고란인 ‘독자의 소리’가 확인된 것은 1953년 11월 5일자부터이며, 마지막으로 검색된

신문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발행되었다. 일어신문 <제주신보>는 미군이 제주에 상륙함에 따라 1945년 9월 25일자로 종간됐다. <제주신보>는 진중신문(陣中新聞)인 일어판 <제주신보>에 근무했던 20대의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신문이다. 발행 초기 이 신문은 빈약한 시설로 인해 타블로이드판 2면에 5호 활자로 격일로 발행되었다.

71) 현재 발행되고 있는 <제민일보>는 1990년 6월 20일 창간된 신문으로, 1960년의 <제민일보>와는 별개의 신문이다.

72)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 50년사: 1957~2007』, 제주도서관, 2006, 73-80쪽. 제주도의 첫 공공도서관은 1910년 ‘박종실 상점(朴宗實 商店)’을 연 박종실(1885~1966)씨가 1957년 6월 1일 제주시 삼도동 235번지의 부지 350평에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여 제주도에 기증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후 제주도서관(초기 명칭은 제주도립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조례제정을 거쳐 1957년 11월 1일 본격 개관되었다. 그리고 1964년 교육자치제 실시와 함께 제주도교육위원회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서관에 1950년대 <제주신보>가 보관되어 있다.

73) <제주신보>의 결호 추종 종수는 무려 2,200 여 호에 달하고 있다. 1945년 창간되어 1963년 11월 20일 제주신문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제주신보>의 발행 호수는 5,301호이다. 이중 제주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제주신보>는 3,100 여 호 정도이다. 아직까지 제주도서관 이외에 <제주신보>를 총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4) 이문교, 앞의 논문, 163쪽.

것은 1960년 9월 21일이다. 한편, <제주신보>는 1962년 11월 18일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언론시책에 의해 1962년 11월 20일 <제민일보>와 통합되어 제호가 <제주신문>⁷⁵⁾으로 변경되었다. 1960년 9월 21일 이후부터 1962년 11월 20일 제주신문으로 통합되기 이전 <제주신보>에는 '독자의 소리'가 1건도 게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서관에 보관된 <제주신보>에서 '독자의 소리'가 처음 확인된 1953년부터 마지막으로 확인된 1960년까지의 '독자의 소리' 115건을 확보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참고로 연도별 제주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제주신보 호수는 1953년 54, 1954년 145, 1955년 329, 1956년 310, 1957년 305, 1958년 307, 1959년 306, 1960년 323으로 총 2,079개호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18호 중 한 건 정도로 독자의 소리가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석대상 기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독자의 소리' 건수

| 연도 | 1953 | 1954 | 1955 | 1956 | 1957 | 1958 | 1959 | 1960 | 전체 |
|------|--------|--------|---------|---------|---------|---------|---------|--------|----------|
| 건수 | 6 | 7 | 25 | 16 | 18 | 19 | 17 | 7 | 115 |
| (비율) | (5.2%) | (6.1%) | (21.7%) | (13.9%) | (15.7%) | (16.5%) | (14.8%) | (6.1%) | (100.0%) |

3. 분석유목

'독자의 소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유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먼저 독자투고자의 특성으로 투고자의 성별, 직업(신분), 신상 공개 형태를 살펴보았다. 독자투고 내용의 특성 파악을 위해 투고 주제, 서술 형식, 투고 대상, 투고 방향, 투고 분량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신문기사에 대한 피드백 차원에서의 독자투고 여부를 파악하였다.

75) 제주신보 제호 변천: 1946.01.26.~1950.08.01 무궁화 도안-1951.07.01.~1953.05.13 제주도 도안-1961.10.01.~1962.12.15 제주신문 / 제주신보 관형: 타블로이드판(1953.11.01 까지)-5절판 13단체(53.11.01~)-배대판 15단체(55.11.19~)-배대판 16단체(61.12.15~)

〈표 2〉 분석유목

| 분석유목 | | 세부내용 |
|----------------|-----------------|---|
| 투고자 특성 | 투고자 성별 유무 | ①있음 ②없음 |
| | 투고자 성별 | ①남성 ②여성 |
| | 투고자 직업(신분) | ①공직자 ②민간인(주민) ③주부 ④학생 ⑤학부형 ⑥농어민 ⑦정치인 ⑧기타 |
| | 투고자 신상 공개 | ①실명 공개 ②반(半) 공개 ③비공개 ⑤표기 없음 |
| 투고 내용 특성 | 투고 주제 | ①정치 ②행정 ③경제 ④사회 ⑤교육 ⑥문화/체육/관광 ⑦미디어 ⑧환경/위생 ⑨일상생활 ⑩기타 |
| | 서술 형식 | ①건의 및 제안 ②고발 ③비판 ④지지 ⑤항변 ⑥청산 ⑦호소 ⑧기타 |
| | 투고 대상 | ①행정당국 ②도민 ③정치인 ④기업 ⑤학교 ⑥특정단체 ⑦언론사 ⑧기타 |
| | 투고 논조 | ①긍정 ②중립 ③부정 |
| | 투고 분량 | ①200-400자 ②400-600자 ③600-800자 ④800자 이상 |
| 피드백 | 신문기사에 대한 피드백 | ①있음 ②없음 |

투고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투고자의 성별은 성에 따른 의견의 특성과 성별 의견의 집중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투고자의 직업(신분)은 독자투고가 특정 계층 혹은 직업군의 의견이 집중되어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항목이다(조아라·이건호, 2011, 150쪽). 한편, 투고자의 직업 유형에 신분을 포함한 것은 1950년대 당사와 현재의 직업 유형이 다르고, 학부형 등은 직업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농민의 경우에도 넓게 보면 일반주민에 포함할 수 있으나, 투고의 내용이 일상생활이 아닌 농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였다. 투고자 직업(신분)은 투고자 이름 란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와 기사 내에 직업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투고자의 신상을 밝히는 문제는 지금의 ‘인터넷실명제’ 논의와도 맥

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명을 공개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느 경우가 더 '저널리즘 구현성'이 높은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제주신보> '독자의 소리' 투고 규정에도 “紙上匿名은 隨意”라 하여 투고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여기서 '수의'는 투고자 본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뜻한다.

투고 내용의 특성과 관련하여 투고 주제는 투고자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는가를 살필 수 있는 항목이다. 이는 언론사의 취재부서를 중심으로 주제를 분류하였으며, 투고 글의 내용 파악을 통해 일부 항목을 추가하였다. 서술 형식은 투고자가 주제나 대상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투고의 목적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⁷⁶⁾ 서술 형식의 세부 유목으로 건의 및 제안은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내놓음을 의미하고, 고발은 개인의 잘못이나 사회의 부조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 비판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려 평가하고 판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지는 찬동하여 도와서 힘을 씀, 항변은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주장함, 청산은 어떤 일이나 부정적인 요소 따위를 깨끗이 정리하여 결말을 지음, 호소는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남에게 강한 주장이나 표현으로 하소연하는 것을 말한다. 서술형식은 글의 표현, 강도, 투고 대상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앞서 제시한 사전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 분류가 중첩되거나 명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고 글이 어떤 의미를 보다 강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투고 대상은 투고자가 누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다.

독자투고는 독자가 자발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개진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자투고는 신문사와 독자 간의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피드백 장치로도 활용된다. 이에 투고 글 가운데 <제주신보> 기사를 읽은 이후에 기고했음을 밝히거나 그렇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피드백이

76) 조아라·이건호, 앞의 논문, 2011, 149쪽.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신문기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독자 투고는 당시 독자가 신문기사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4. 신뢰도 검증

분석대상 자료에 대한 코딩은 본 연구자가 하였으며,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체 115건의 15%인 17건을 랜덤 샘플링(random sampling) 방식으로 추출하여 코더 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한 코더는 언론학 전공자로 다수의 내용분석 경험이 있는 연구자이다. 코더 간 신뢰도 측정은 Cohen's Kappa를 사용하여 검증했다. 주요 항목별 신뢰도는 투고 주제 .850, 서술 형식 .759, 투고 대상 .895, 투고 방향 .734로 확인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피어슨 카이제곱 검증(Pearson Chi-Square test)을 사용하였고,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의 20%를 넘는 경우에는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했다.

IV. 분석결과

1. '독자의 소리' 투고자와 투고 내용의 특성

1) '독자의 소리' 투고자의 특성

투고자의 성별 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개된 경우가 111건(96.5%)이었으며,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4건(3.5%)으로 나타나 대부분 성별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이 공개된 경우, 남성이 104건(93.7%)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여성은 7건(6.3%)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남성이 '독자의 소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개진해 왔음을 보여준다.

'독자의 소리' 투고자 직업은 일반주민(61건, 53.0%)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이어 공직자(16건, 13.9%), 학부형과 농민(각각 10건, 8.7%), 학생(8건, 7.0%), 주부와 피난민(각각 4건, 3.5%), 정치인(2건, 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의 대표적인 공론장인 '독자의 소리'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참여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반주민과 주부를 합한 비율이 56.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자의 소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쟁 직후 피난민들의 사회 참여도 확인되었다.

'독자의 소리' 투고자의 신상은 이니셜로 공개한 경우가 56건(48.7%)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비공개(30건, 26.1%), 실명 공개(25건, 21.7%), 표기 없음(4건, 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투고자들이 그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불편하게 여겼음을 보여준다.

2) '독자의 소리' 투고 내용의 특성

투고 주제는 교육이 32건(27.8%)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어 사회(27건, 23.5%), 행정(17건, 14.8%), 문화/체육/관광(14건, 12.2%), 환경/위생(13건, 11.3%), 정치(6건, 5.2%), 경제(4건, 3.5%), 미디어, 일상생활이 각각 1건(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듯이 '독자의 소리' 투고 주제가 매우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위생이나 일상생활과 같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투고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술 형식은 건의/제안이 38건(3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비판(29건, 25.2%), 고발(28건, 24.3%), 호소(16건, 13.9%), 항변(3건, 2.6%), 청산(1건, 0.9%)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독자들은 '독자의 소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다양한 서술 방식으로 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의 소리' 투고 글이 신문기사에 대한 피드백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18건(15.7%)의 기사가 신문보도에 대한 피드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신문을 열독하는 독자들이 있었음을 추론하

게 한다.

투고 대상은 행정당국에 대한 투고가 67건(5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도민을 대상으로 한 투고(19건, 16.5%), 학교(11건, 9.6%), 특정단체(9건, 7.8%), 정치인(5건, 4.3%), 기타(2건, 1.7%), 기업과 언론사가 각각(1건, 0.9%)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이처럼 투고 대상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아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독자 투고를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투고 방향은 부정적인 내용이 89건(77.4%)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립적인 내용(20건, 17.4%), 긍정적인 내용(6건, 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독자 투고가 사회 전반의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론하게 한다.

투고 분량은 400~600자가 65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0~400자(36건, 31.3%), 600~800자(9건, 7.8%), 800자 이상(5건, 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독자투고의 분량은 1953년에는 300자 내외로 규정을 두다, 1955년에는 400자 내외로 다소 늘렸다. 이에 200자에서 600자 사이의 독자 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투고자에 따른 투고내용의 특성

1) 투고자의 성별에 따른 투고 주제

투고자의 성별에 따른 투고 주제를 살펴본 결과,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투고 주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투고자의 성별에 따른 투고 주제

| 구분 | 남성 | 여성 | 전체 |
|----|-----------|---------|-----------|
| 정치 | 6(5.8%) | 0(0.0%) | 6(5.4%) |
| 행정 | 17(16.3%) | 0(0.0%) | 17(15.3%) |

| | | | |
|----------|-------------|-----------|-------------|
| 경제 | 4(3.8%) | 0(0.0%) | 4(3.6%) |
| 사회 | 23(22.1%) | 3(42.9%) | 26(23.4%) |
| 교육 | 28(26.9%) | 2(28.6%) | 30(27.0%) |
| 문화/체육/관광 | 14(13.5%) | 0(0.0%) | 14(12.6%) |
| 미디어 | 1(1.0%) | 0(0.0%) | 1(0.9%) |
| 환경/위생 | 10(9.6%) | 2(28.6%) | 12(10.8%) |
| 일상생활 | 1(1.0%) | 0(0.0%) | 1(0.9%) |
| 전체 | 104(100.0%) | 7(100.0%) | 111(100.0%) |

x2 → x2 / 기대빈도 5 미만 12셀: 66.7% → 기대빈도 5 미만: 12셀(66.7%)

구체적으로 남성들은 교육(28건, 26.9%) 주제에 대한 투고를 가장 많이 했고, 이어 사회(23건, 22.1%), 행정(17건, 16.3%), 문화/체육/관광(14건, 13.5%), 환경/위생(10건, 9.6%), 정치(6건, 5.8%), 경제(4건, 3.8%), 미디어, 일상생활(각각 1건, 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들은 사회(3건, 42.9%)에 대한 투고 글을 가장 많이 실었으며, 이어 교육, 환경/위생(각각 2건, 2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주제를 다룬 투고 글은 없었다.

2) 투고자의 성별에 따른 서술 형식

투고자의 성별에 따른 서술 형식을 살펴본 결과,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다양한 서술 형식의 투고 글을 기고하였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서술 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투고자의 성별에 따른 서술 형식

| 구분 | 남성 | 여성 | 전체 |
|-------|-------------|-----------|-------------|
| 건의/제안 | 34(32.7%) | 2(28.6%) | 36(32.4%) |
| 고발 | 25(24.0%) | 2(28.6%) | 27(24.3%) |
| 비판 | 28(26.9%) | 1(14.3%) | 29(26.1%) |
| 항변 | 2(1.9%) | 0(0.0%) | 2(1.8%) |
| 청산 | 1(1.0%) | 0(0.0%) | 1(0.9%) |
| 호소 | 14(13.5%) | 2(28.6%) | 16(14.4%) |
| 전체 | 104(100.0%) | 7(100.0%) | 111(100.0%) |

$\chi^2 \rightarrow \chi^2 / \text{기대빈도 } 5 \text{ 미만 } 8\text{셀}: 66.7\% \rightarrow \text{기대빈도 } 5 \text{ 미만}: 8\text{셀}(66.7\%)$

전반적으로 남성들은 건의/제안(34건, 32.7%) 형식의 글을 가장 많이 실었으며, 이어 비판(28건, 26.9%), 고발(25건, 24.0%), 호소(14건, 13.5%), 항변(2건, 1.9%), 청산(1건, 1.0%)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반면에 여성들은 건의/제안, 고발, 호소 형식의 글이 각각 2건(28.6%)씩 나타났으며, 이어 비판이 1건(14.3%) 순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유형의 투고 글은 없었다.

3) 투고자의 직업(신분) 유형에 따른 투고 주제

투고자의 직업(신분) 유형에 따른 투고 주제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은 주로 교육(8건, 50.0%) 관련 주제에 대한 투고 글을 가장 많이 실었고, 이어 행정, 사회, 문화/체육/관광(각각 2건, 12.5%), 경제, 환경/위생(각각 1건, 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투고자의 직업(신분)에 따른 '독자의 소리' 투고 주제

| 구분 | 공직자 | 일반주민 | 주부 | 학생 | 학부형 | 농민 | 정치인 | 피난민 | 전체 |
|----|-----|------|-----|-----|-----|-----|--------|-----|------|
| 정치 | 0 | 4 | 0 | 0 | 0 | 0 | 2 | 0 | 6 |
| | .0% | 6.6% | .0% | .0% | .0% | .0% | 100.0% | .0% | 5.2% |
| 행정 | 2 | 10 | 0 | 1 | 0 | 3 | 0 | 1 | 17 |

| | | | | | | | | | |
|--------------|--------|--------|--------|--------|--------|--------|--------|--------|--------|
| | 12.5% | 16.4% | .0% | 12.5% | .0% | 30.0% | .0% | 25.0% | 14.8% |
| 경제 | 1 | 1 | 0 | 0 | 0 | 2 | 0 | 0 | 4 |
| | 6.3% | 1.6% | .0% | .0% | .0% | 20.0% | .0% | .0% | 3.5% |
| 사회 | 2 | 15 | 3 | 1 | 0 | 3 | 0 | 3 | 27 |
| | 12.5% | 24.6% | 75.0% | 12.5% | .0% | 30.0% | .0% | 75.0% | 23.5% |
| 교육 | 8 | 8 | 0 | 5 | 10 | 1 | 0 | 0 | 32 |
| | 50.0% | 13.1% | .0% | 62.5% | 100.0% | 10.0% | .0% | .0% | 27.8% |
| 문화/체육/ 관광 | 2 | 11 | 0 | 1 | 0 | 0 | 0 | 0 | 14 |
| | 12.5% | 18.0% | .0% | 12.5% | .0% | .0% | .0% | .0% | 12.2% |
| 미디어 | 0 | 1 | 0 | 0 | 0 | 0 | 0 | 0 | 1 |
| | .0% | 1.6% | .0% | .0% | .0% | .0% | .0% | .0% | .9% |
| 환경 /위생 | 1 | 10 | 1 | 0 | 0 | 1 | 0 | 0 | 13 |
| | 6.3% | 16.4% | 25.0% | .0% | .0% | 10.0% | .0% | .0% | 11.3% |
| 일상 생활 | 0 | 1 | 0 | 0 | 0 | 0 | 0 | 0 | 1 |
| | .0% | 1.6% | .0% | .0% | .0% | .0% | .0% | .0% | .9% |
| 구분 | 16 | 61 | 4 | 8 | 10 | 10 | 2 | 4 | 115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x2 → x2 / 기대빈도 5 미만 67셀: 93.1% → 기대빈도 5 미만: 67셀(93.1%)

일반주민의 경우에는 사회(15건, 24.6%) 관련 주제를 가장 많이 다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어 문화/체육/관광(11건, 18.0%), 행정, 환경/위생(각각 10건, 16.4%), 교육(8건, 13.1%), 정치(4건, 6.6%), 경제, 미디어, 일상생활(각각 1건, 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경우에는 사회(3건, 75.0%), 환경/위생(1건, 25.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생은 교육(5건, 62.5%) 주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이어 행정, 사회, 문화/체육/관광에서 각각 1건(12.5%)씩 확인되었다. 학부모는 교육(10건) 주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의 경우에는 행정, 사회 관련 주제에 대해 각각 3건(30.0%)씩 의사표명을 하였고, 경제(2건, 20.0%)와 교육, 환경/위생 분야에서도 각각 1건(10.0%)씩 나타났다. 정치인은 정치(2건) 관련 주제에서만 의사를 표현하였고, 피난민의 경우에는 사회(3건, 75.0%) 관련 주제와 행정(1건, 25.0%) 관련 주제에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4) 투고자의 직업(신분) 유형에 따른 서술 형식

투고자의 직업(신분) 유형에 따른 서술 형식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자들은 주로 건의/제안(6건, 37.5%) 형식의 글을 투고하였다. 이어 비판(4건, 25.0%), 호소(3건, 18.8%), 항변(2건, 12.5%), 고발(1건, 6.3%)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일반주민들 또한 건의/제안(22건, 36.1%) 형식의 글을 가장 많이 투고했다. 이어 고발(18건, 29.5%), 비판(17건, 27.9%), 호소(2건, 3.3%), 항변, 청산(각각 1건, 1.6%)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표 6〉 투고자의 직업(신분) 유형에 따른 서술 형식

| 구분 | 공직자 | 일반주민 | 주부 | 학생 | 학부형 | 농민 | 정치인 | 피난민 | 전체 |
|-------|--------|--------|--------|--------|--------|--------|--------|--------|--------|
| 건의/제안 | 6 | 22 | 1 | 3 | 2 | 3 | 0 | 1 | 38 |
| | 37.5% | 36.1% | 25.0% | 37.5% | 20.0% | 30.0% | .0% | 25.0% | 33.0% |
| 고발 | 1 | 18 | 1 | 0 | 5 | 1 | 1 | 1 | 28 |
| | 6.3% | 29.5% | 25.0% | .0% | 50.0% | 10.0% | 50.0% | 25.0% | 24.3% |
| 비판 | 4 | 17 | 0 | 2 | 3 | 1 | 1 | 1 | 29 |
| | 25.0% | 27.9% | .0% | 25.0% | 30.0% | 10.0% | 50.0% | 25.0% | 25.2% |
| 항변 | 2 | 1 | 0 | 0 | 0 | 0 | 0 | 0 | 3 |
| | 12.5% | 1.6% | .0% | .0% | .0% | .0% | .0% | .0% | 2.6% |
| 청산 | 0 | 1 | 0 | 0 | 0 | 0 | 0 | 0 | 1 |
| | .0% | 1.6% | .0% | .0% | .0% | .0% | .0% | .0% | .9% |
| 호소 | 3 | 2 | 2 | 3 | 0 | 5 | 0 | 1 | 16 |
| | 18.8% | 3.3% | 50.0% | 37.5% | .0% | 50.0% | .0% | 25.0% | 13.9% |
| 전체 | 16 | 61 | 4 | 8 | 10 | 10 | 2 | 4 | 115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chi^2 \rightarrow \chi^2 / \text{기대빈도 } 5 \text{ 미만 } 43\text{셀: } 89.6\% \rightarrow \text{기대빈도 } 5 \text{ 미만: } 43\text{셀}(89.6\%)$

주부는 호소 형식의 투고 글을 2건(50.0%) 실었으며, 이어 건의/제안, 고발에 대한 글을 각각 1건씩(25.0%) 실었다. 학생은 건의/제안 및 호소의 글을 각각 3건(37.5%)씩 투고하였으며, 비판의 글도 2건(25.0%) 투고

하였다. 학부형은 주로 고발(5건, 50.0%)의 글을 실었으며, 이어 비판(3건, 30.0%)과 건의/제안(2건, 20.0%)의 글을 투고했다.

농민은 주로 호소(5건, 50.0%)의 글을 투고했으며, 이어 건의/제안(3건, 30.0%), 고발, 비판(각각 1건, 10.0%)의 글을 실었다. 정치인은 고발과 비판의 글을 각각 1건(50.0%)씩 실었고, 피난민은 건의/제안, 고발, 비판, 호소 형식의 글을 각각 1건(25.0%)씩 투고했다.

3. 투고 대상에 따른 투고 내용의 특성

1) 투고 대상에 따른 투고 주제

투고 대상에 따른 투고 주제를 살펴본 결과, 행정당국과 도민, 그리고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한 투고 주제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기타 정치인, 기업, 학교, 특정단체,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투고 주제는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당국을 대상으로 한 투고 주제는 사회(16건, 23.9%)를 다룬 주제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행정(14건, 20.9%), 교육과 환경/위생(각각 12건, 17.9%), 문화/체육/관광(8건, 11.9%), 경제(2건, 3.0%), 정치, 미디어, 일상생활(각각 1건, 1.5%)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사회(7건, 36.8%)가 가장 높게 확인되었고, 이어 교육(5건, 26.3%), 문화/체육/관광(3건, 15.8%), 행정(2건, 10.5%), 경제와 환경/위생(각각 1건, 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투고 대상에 따른 투고 주제

| 구분 | 행정당국 | 도민 | 정치인 | 기업 | 학교 | 특정단체 | 언론사 | 기타 | 전체 |
|----|-------|-------|-------|-----|-----|-------|-----|-------|-------|
| 정치 | 1 | 0 | 4 | 0 | 0 | 0 | 0 | 1 | 6 |
| | 1.5% | .0% | 80.0% | .0% | .0% | .0% | .0% | 50.0% | 5.2% |
| 행정 | 14 | 2 | 0 | 0 | 0 | 1 | 0 | 0 | 17 |
| | 20.9% | 10.5% | .0% | .0% | .0% | 11.1% | .0% | .0% | 14.8% |

| | | | | | | | | | |
|----------|--------|--------|--------|--------|--------|--------|--------|--------|--------|
| 경제 | 2 | 1 | 0 | 0 | 0 | 1 | 0 | 0 | 4 |
| | 3.0% | 5.3% | .0% | .0% | .0% | 11.1% | .0% | .0% | 3.5% |
| 사회 | 16 | 7 | 0 | 1 | 0 | 3 | 0 | 0 | 27 |
| | 23.9% | 36.8% | .0% | 100.0% | .0% | 33.3% | .0% | .0% | 23.5% |
| 교육 | 12 | 5 | 1 | 0 | 11 | 2 | 0 | 1 | 32 |
| | 17.9% | 26.3% | 20.0% | .0% | 100.0% | 22.2% | .0% | 50.0% | 27.8% |
| 문화/체육/관광 | 8 | 3 | 0 | 0 | 0 | 2 | 1 | 0 | 14 |
| | 11.9% | 15.8% | .0% | .0% | .0% | 22.2% | 100.0% | .0% | 12.2% |
| 미디어 | 1 | 0 | 0 | 0 | 0 | 0 | 0 | 0 | 1 |
| | 1.5% | .0% | .0% | .0% | .0% | .0% | .0% | .0% | .9% |
| 환경/위생 | 12 | 1 | 0 | 0 | 0 | 0 | 0 | 0 | 13 |
| | 17.9% | 5.3% | .0% | .0% | .0% | .0% | .0% | .0% | 11.3% |
| 일상생활 | 1 | 0 | 0 | 0 | 0 | 0 | 0 | 0 | 1 |
| | 1.5% | .0% | .0% | .0% | .0% | .0% | .0% | .0% | .9% |
| 전체 | 67 | 19 | 5 | 1 | 11 | 9 | 1 | 2 | 115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x2 → x2 / 기대빈도 5 미만 66셀(91.7%) → 기대빈도 5 미만: 66셀(91.7%)

정치인의 경우에는 정치(4건, 80.0%) 관련 주제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에서 1건(20.0%) 확인되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고 주제는 사회 분야에서 1건 등장했고, 학교의 경우에도 교육을 주제로 11건 등장했다.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한 투고 글은 사회를 주제로 글이 3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이 각각 2건(22.2%), 행정과 경제에서 각각 1건(11.1%) 등장했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투고 주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1건 확인되었다.

2) 투고 대상에 따른 서술 형식

투고 대상에 따른 서술 형식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당국을 향한 투고 글은 주로 건의/제안(24건, 3.8%)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고발(20건, 29.9%), 비판 및 호소(각각 11건, 16.4%), 항변(1건, 1.5%) 순으로 나타났다. 도민을 향한

투고 또한 주로 건의/제안(6건, 31.6%)의 글로 확인되었으며, 이어 비판(5건, 26.3%), 고발 및 호소(각각 3건, 15.8%), 항변 및 청산(각각 1건, 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투고 대상에 따른 서술 형식

| 구분 | 행정당국 | 도민 | 정치인 | 기업 | 학교 | 특정단체 | 언론사 | 기타 | 전체 |
|-----------|--------|--------|--------|--------|--------|--------|--------|--------|--------|
| 건의 /제안 | 24 | 6 | 1 | 1 | 3 | 2 | 0 | 1 | 38 |
| | 35.8% | 31.6% | 20.0% | 100.0% | 27.3% | 22.2% | .0% | 50.0% | 33.0% |
| 고발 | 20 | 3 | 2 | 0 | 2 | 1 | 0 | 0 | 28 |
| | 29.9% | 15.8% | 40.0% | .0% | 18.2% | 11.1% | .0% | .0% | 24.3% |
| 비판 | 11 | 5 | 2 | 0 | 5 | 5 | 1 | 0 | 29 |
| | 16.4% | 26.3% | 40.0% | .0% | 45.5% | 55.6% | 100.0% | .0% | 25.2% |
| 항변 | 1 | 1 | 0 | 0 | 0 | 0 | 0 | 1 | 3 |
| | 1.5% | 5.3% | .0% | .0% | .0% | .0% | .0% | 50.0% | 2.6% |
| 청산 | 0 | 1 | 0 | 0 | 0 | 0 | 0 | 0 | 1 |
| | .0% | 5.3% | .0% | .0% | .0% | .0% | .0% | .0% | .9% |
| 호소 | 11 | 3 | 0 | 0 | 1 | 1 | 0 | 0 | 16 |
| | 16.4% | 15.8% | .0% | .0% | 9.1% | 11.1% | .0% | .0% | 13.9% |
| 전체 | 67 | 19 | 5 | 1 | 11 | 9 | 1 | 2 | 115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x2 → x2 / 기대빈도 5 미만 43셀(89.6%) → 기대빈도 5 미만: 43셀(89.6%)

정치인을 향한 투고 글은 고발과 비판(각각 2건, 40.0%)의 글이 가장 많았고, 이어 건의/제안(1건, 20.0%)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에 대한 글은 건의/제안이 1건 있었다. 또한 학교를 향한 글은 비판(5건, 45.5%)에 대한 글이 가장 많았고, 이어 건의/제안(3건, 27.3%), 고발(2건, 18.2%), 호소(1건, 9.1%) 순으로 확인되었다.

특정 단체에 대한 투고 글은 비판(5건, 55.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의/제안(2건, 22.2%), 고발 및 호소(각각 1건, 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언론사에 대한 투고 글은 비판에 관한 글이 1건 확인되었다.

4. 신문기사에 대한 피드백 성격의 독자투고의 특성

1) 신문기사에 대한 피드백 투고 글의 주제

신문을 통해 보도된 기사에 대한 피드백 성격을 갖는 ‘독자의 소리’ 투고 18건을 대상으로 투고 글의 주제를 살펴본 결과, 교육 관련 투고가 10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3건, 16.7%), 문화/체육/관광(2건, 11.1%), 정치, 경제, 환경/위생(각각 1건, 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와 미디어, 일상생활에 관한 피드백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9〉 신문기사에 대한 피드백 투고 글의 주제

| 구분 | 정치 | 행정 | 경제 | 사회 | 교육 | 문화체육 관광 | 미디어 | 환경위생 | 일상생활 | 전체 |
|-----|------|-------|------|------|-------|------------|------|------|------|--------|
| 건수 | 1 | 3 | 1 | 0 | 10 | 2 | 0 | 1 | 0 | 18 |
| (%) | 5.6% | 16.7% | 5.6% | 0.0% | 55.6% | 11.1% | 0.0% | 5.6% | 0.0% | 100.0% |

이러한 결과는 독자들이 교육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 문제에 대한 비판 및 개선의지가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관련 내용들이 제주 지역사회의 주된 관심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이나 교사들의 교육 태도와 관련 비판을 한 투고에 대하여 교사들이 강도 높게 항변하는 등 피드백 투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다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지면 공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2) 신문기사에 대한 피드백 투고 글의 서술 형식

신문기사에 대한 피드백 투고 글 전체 18건을 대상으로 서술 형식을 살펴본 결과, 건의/제안에 대한 투고 글이 8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발(4건, 22.2%), 비판(3건, 16.7%), 항변(2건, 11.1%), 호소(1건, 5.6%)의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교육 관련 피드백 투고 글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에 대한 교

사나 학교 당국의 항변성 피드백 투고 글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청산에 대한 투고 글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10〉 신문기사에 대한 피드백 투고 글의 서술 형식

| 구분 | 건의제안 | 고발 | 비판 | 항변 | 청산 | 호소 | 전체 |
|-------|-------|-------|-------|-------|-----|------|--------|
| 건수(%) | 8 | 4 | 3 | 2 | 0 | 1 | 18 |
| | 44.4% | 22.2% | 16.7% | 11.1% | .0% | 5.6% | 100.0%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전후 제주지역에서 발간되었던 <제주신보>의 '독자의 소리'란을 통해 신문독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과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투고자의 성별은 대부분 공개되었으며, 주로 남성이 독자 투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고자의 직업(신분)은 일반주민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직자, 학부형과 농민, 학생, 주부, 피난민, 정치인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신문의 대표적인 공론장인 '독자의 소리'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투고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주민, 주부 등과 같은 일반인들의 참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고자의 신상은 대부분 이니셜이나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실명을 언급한 경우는 21.7%에 머물렀다. 이처럼 당시에는 투고자의 실명 거론을 꺼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자의 소리' 투고 주제는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을 다룬 투고 글이 비교적 많았고, 사회, 행정, 문화/체육/관광, 환경/위생, 정치, 경제, 미디어, 일상생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환경이나 위생, 일상생활과 같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같은 일상적인 주제들도 비교적 많이 다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술 형식은 건의/제안의 형식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비판, 고발, 호소, 항

변, 청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매우 분명한 어조로 표명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신문기사에 대한 독자 투고도 18건(15.7%)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신문을 열독하는 독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독자투고의 대상은 행정당국에 대한 투고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도민을 대상으로 한 투고, 학교, 특정단체, 정치인, 기업,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투고가 뒤를 이었다. 투고 대상이 매우 다양했다는 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독자 투고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독자 투고 논조는 부정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독자 투고가 사회 전반 문제들에 대한 지적 혹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었음을 보여준다. 독자 투고 분량은 400~600자와 200~400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신문사에서 제한한 독자 투고의 분량이 300자 내외에서 400자 내외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투고자의 성별에 따른 투고 주제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사회, 교육, 환경/위생 관련 주제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서술 형식에서도 남성들은 다양한 형식의 글로 그들의 의견을 표명했던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건의/제안, 고발, 호소 등의 형식을 갖춘 투고 글만 확인되었다. 투고자의 직업 유형에 따른 투고 주제에서는 공직자, 일반주민의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투고 글이 실렸던 반면, 주부, 학생, 학부모, 농민, 정치인, 피난민의 경우에는 일부 주제에 대한 투고 글이 실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고자의 직업 유형에 따른 서술 형식에서도 공직자와 일반주민은 다양한 형식의 글을 투고했던 반면, 다른 직업군의 투고자들에서는 일부 서술 형식의 투고 글만 확인되었다. 투고 대상에 대한 투고 주제의 경우, 행정당국과 도민, 그리고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한 투고 주제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기타 정치인, 기업, 학교, 특정단체,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투고 주제는 다양하지 않았다. 투고 대상에 대한 서술 형식에서도 행정당국, 도민을 향한 투고 글은 다양한 서술 형식으로 표명되

었다. 반면, 정치인, 기업 등을 향한 투고 글은 고발, 비판, 건의/제안 등의 서술 형식으로만 나타났다.

신문기사에 대한 피드백 차원의 독자 투고 18건을 대상으로 투고 주제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교육 관련 투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행정, 문화/체육/관광, 정치, 경제, 환경/위생과 관련된 주제가 다루어졌다. 서술 형식에서는 건의/제안, 고발, 비판, 항변, 호소 등의 글만 확인되었다. 피드백 독자 투고 건수가 많지 않아 어떠한 특성의 유의미한 해석이나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독자 투고가 상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4·3과 6·25 전쟁을 지나온 1950년대의 극심한 사회 혼란 속에서 제주지역 신문독자들이 다양하게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각종 사회 문제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개진했던 적극적인 주체들이었음을 보여준다. 요한겐슨(Wahl-Jorgensen)의 주장처럼⁷⁷⁾ '독자의 소리' 지면이 독자들의 다양한 걱정거리와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주민의 독자투고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독자투고의 절반 가량이 공무원과 공기업 직업군에 있는 독자들이라는 최근의 연구결과와⁷⁸⁾ 사뭇 다르다. 이러한 결과는 독자란을 처음 선보였던 1950년대 독자란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피드백, 독자 참여,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자란의 기능적 측면에서 지금의 독자란이 오히려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⁷⁹⁾

또한 교육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독자들 간 공방이 이루어진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유명 논객이나 평론가들이 아닌 <제주신보>의 일반 독자들 간의 공방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대표적인 공론장인 신문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음을 보여주

77) Wahl-Jorgensen, K, 2002.

78) 윤희각·강경국, 앞 논문, 2018.

79) 윤희각·강경국, 앞 논문, 2018.

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독자들이 신문을 통해 미디어에 관여하고 독자들과 기자, 독자들과 정부, 독자들과 독자들 간의 ‘열린 창’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1950년 당시 제주사회에 신문 이외에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신보>의 독자투고가 갖는 공론장의 기능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자들의 자발적 투고는 총체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데에도 기여했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전후에 발간된 <제주신보> ‘독자의 소리’에 실린 독자들의 투고 글을 대상으로 투고자와 투고 내용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독자란의 ‘공론장’ 기능을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1950년대 당시의 제주사회를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독자투고’라는 하나의 기사 유형에 대한 분석만으로 당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현상을 일반화 할 수는 없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독자의 소리’를 포함한 전체 뉴스 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당대 신문들이 결호가 많고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지 않아 현존하는 신문들에 한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역사적 사료로서 신문의 가치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1950년대 제주사회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고, 당시 신문의 독자투고 기능을 파악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국·윤희각, 「지방일간지 독자투고 분석을 통한 경찰의 對 언론홍보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권 6호, 2018.
- 강신철, 『신문의 독자투고와 공론장적 성격: '언론개혁'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구교태, 「독자의 숨결이 느껴지는 신문으로 거듭나야」, 『매일신문』, 26, 2009.8.
- 박용규·정연구·유선영·문철수, 「100년 전 이미 독자투고 게재」, 『신문과 방송』, 4월호, 1996.
- 신용하,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한국사회학』 제40집 1호, 2006.
- 우병동·임양준, 「중앙일간지와 지방일단지의 독자투고 비교연구: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광주일보, 부산일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2006.
- 윤희각·강경국, 「지방신문 독자투고와 투고자 특성에 관한 연구: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제17권 제2호, 2018.
- 윤석홍, 「독자페이지 기능과 개선방안」, 제26회 프레스토론회 자료집, 5월호, 1993.
- 이경자, 「독자란 의미와 기능」, 『신문과 방송』, 1988년 9월호, 42-45, 1988.
- 이문교, 『제주언론사』, 나남, 1997.
- 이승환, 『유교담론의 지형학』, 푸른숲, 2004.
- 이은희, 『한국 신문의 독자란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임종섭, 「공중 프레임과 일간지 발행부수와의 관계: 미국 일간지의 독자투고란 분석」,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8권 4호, 2010.
- 전은경, 「<대한매일신보>의 <편편기담>과 '쓰는 독자'의 출현」, 『한국현대문학연구』 30호, 2010.

- 최 준, 『한국신문사』, 일조각, 1968.
-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 50년사: 1957-2007』, 제주도서관, 2006.
- 제주신문사, 『제주신문 50년사』, 제주신문사, 1995.
- 조아라·이건호, 「한국 중앙 일간지의 독자투고 특성 연구: 1997년-2009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5, 2011.
- 채 백, 『독립신문연구』, 한나래, 2006.
- Albrecht, S, “Whose voice is heard in online deliberation? A study of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in political debates on the Internet”,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9(1), 2006.
-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London. 1991,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2002.
- Aucoin, J, “Does newspaper call-in line expand public conversation.?” *Newspaper Research Journal*, 18(3), 1997.
- Benjamin, W, *Kleine geschichte der photographie*. 1931. 최성만 (역)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길, 2007.
- Benkler, Y,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 Bogart, L, *Press and public: Who reads, what, when, where, and why in American newspaper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1.
- Brooks, B. S., Kennedy, G., Moen, D. R., & Ranly, D, *News Reporting and Writing*,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 Canter, L, “The misconception of online comment threads: Content and control on local newspaper websites”, *Journalism Practice*, 7(5), 2013.
- Grey, D. L. & Brown, T. R, “Letters to the editor: Hazy reflections of public Opinion”, *Journalism Quarterly*, 47(2), 1970.
- Habermas, J, “The public sphere: An encyclopedia article”, *New German*

Critique, 3, 1974.

Hartley, J, *Popular reality*. London: Arnold, 1996, 저널리즘학연구소 (역), 『저널리즘 핸드북』, 새물결, 2015.

Hoffman, L. H. & Slater, M. D, "Evaluating public discourse in newspaper opinion articles: Values-framing and integrative complexity in substance and health policy issu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4(1), 2007.

Hynds, E. C, "Editorial pages editors discuss use of letters", *Newspaper Research Journal*, 1, 1992.

_____, "Editors at Most U.S. Dailies See Vital Roles for Editorial Page", *Journalism Quarterly*, 71(3), 1994.

Kapoor, S. & Botan, C, "Studies compare how editors use letters", *The Masthead*, 44(1), 1992.

Mayer-Schonberger, V,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2009, 구본권 (역)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2011.

McNair, B, Journalism and democracy. In K. W. Jorgensen & T. Hanitzsch. (Eds.),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2009. 저널리즘학연구소 (역), 『저널리즘 핸드북』, 새물결, 2015.

Papacharissi, Z, "The virtual sphere", *New Media & Society*, 4(1), 2002.

Paskin, D, "Say what? An analysis of reader comments in bestselling American newspaper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16(2), 2010.

Pasternack, S, *The open forum: A study of letters to the editor and the people who write the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71st, Portland, Oregon, July 2-5). 1988.

Raeymaeckers, K, "Letters to the editor: A feedback opportunity turned into a marketing tool an account of selection and editing practices in the Flemish Daily Pres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0(2), 2005.

- Santana, A. D, "Online readers' comments represent new opinion pipeline", *Newspaper Research Journal*, 32(3), 2011.
- Sigelman, L. & Walkosz, B. J, "Letters to the Editor as a Public Opinion Thermometer: the Martin Luther King holiday vote in Arizona", *Social Science Quarterly*, 73(4), 1992.
- Silverstone, R, *Why Study the Media.?* London: Sage. 1999.[김세은 (역),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Schramm, W, *The process and effect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5.
- Vitak, J., Zube, p., Smock, A., Carr, C. T., Ellison, N., & Lampe, C, "It's complicated: Facebook user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2008 ele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3), 2011.
- Wahl-Jorgensen, K, "Understanding the conditions for public discourse: Four rules for selecting letters to the editor", *Journalism Studies*, 3(1), 2002.
- _____, "A 'legitimate beef' or 'raw meat?' civility, multiculturalism, and letters to the editor", *The Communication Review*, 70, 2004.
- Williams, F., Rice, R. E., & Rogers, E, *Research Methods and the New Media*. New York: The Free Press. 1988.
- Zamith, R. & Lewis, S. C, "From public spaces to public sphere rethinking systems for reader comments on online news sites", *Digital Journalism*, 2(4),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 “Reader’s Column” of Jeju-Shinbo in the 1950s

Choi, Nak-jin*

In this study, I analyze who wanted to express their thoughts and opinions on what topics and to whom through the “Reader’s Column” of Jeju-Shinbo, which was published in Jeju province in the 1950s. Most of the contributors were males, and their professions varied from ordinary residents to public officials, parents, farmers, and so on. Their names were primarily disclosed as initials or not presented. The topics were varied, including education, society, and administration. The contents were mostly about suggestions and proposals, and there were various types of articles such as criticism, accusations, and appeals. Moreover, authors expressed their opinions very clearly. There were 18 articles written by readers as feedback on news articles. Readers most frequently expressed their opinions toward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they also showed their thoughts on various subjects such as local residents, schools, specific groups, and politicians. Most of the articles written by readers were negative, with volumes ranging from 200 to 600 characters. These findings show that, despite the Jeju 4.3 Incident and 6.25 War in the 1950s, the readers of Jeju province read newspapers diligently, participated in various social issues, and had the subjectivity to express their thoughts and opinions. Also, it implies that the Reader’s Column of Jeju-Shinbo in the 1950s

*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 Jeju National University

played a role as the public sphere where readers exchanged their opinions and helped form public opinion.

Key-words: 1950s, Jeju-Shinbo, Reader's Column, opinion formation, public sphere

논문투고일: 2018. 12. 31.

심사완료일: 2019. 01. 26.

게재확정일: 2019. 02. 01.



<부록 2> 독자의 소리 목록

| 번호 | 연월일 | 제목 | 투고자 |
|----|--------|----------------------------------|----------------------|
| 1 | 531105 | 공동변소는 언제나 | 삼도리 김기일 |
| 2 | 531106 | 전시생활개선운동은구호뿐 | 애월 애타는 생 |
| 3 | 531107 | 결혼식에여학생축사 | 이도리 KO생 |
| 4 | 531109 | 심오환이란 만부당 | 한림 고일군 |
| 5 | 531110 | 사치품단속은 한 때 만? | 일도리 영숙 |
| 6 | 531118 | 심야토록 영업하는 요정단속하라 | 일도리 KS생 |
| 7 | 540321 | 국기를 바르(게) 달자 | 삼도리 장(張)생 |
| 8 | 540327 | 시내 뺨스에 일언 | 외도리 K생 |
| 9 | 540401 | 학교 잡부금에 일언 | 삼도리 K생 |
| 10 | 540420 | 모락 삼가자 | 삼도리 K생 |
| 11 | 540426 | 무자격자 출마 삼가라 | 구좌면 윤수백 |
| 12 | 541228 | 다방 출입의 예의 | 애다(愛茶)생 |
| 13 | 541229 | 가로등 복구를 바람 | 삼도리 K생 |
| 14 | 550107 | 남전(南電)에 일언 | 일도리 K생 |
| 15 | 550411 | 선반물 근방 피혁, 공장 철거를 바람 | 표기 없음(삼도나 용담 주민 추정) |
| 16 | 550415 | 통금시간에 요란(擾亂)치는 자 취체(取締, 단속)해 주시오 | 일도리 S생 |
| 17 | 550420 | 무기의 남용을 단속해주시요 | 조천 KH생 |
| 18 | 550423 | 한림항 등대불을 밝히게 해주시요 | 한림면 한림리 이정식 |
| 19 | 550425 | 여자에게 상처입힌 폭한 처벌해주시요 | 용담리 이창선 |
| 20 | 550427 | 팬스에 미친 처, 박봉사리 남편의 호소 | 표기 없음 |
| 21 | 550428 | 개강 안하는 제대(濟大), 학생들은 시간이 아깝다 | 제주읍 일 학부형 |
| 22 | 550504 | 현상모집한 교육론, 문(文) 어떻게 처분했소 | 한림면 김시골생 |
| 23 | 550627 | 체납자에게 일언 | 삼도리 세리(稅吏) |
| 24 | 550628 | 소방대원의 고애(苦哀) | 소방대장 김봉옥 |
| 25 | 550629 | 법호(法護) 사업의 참뜻 | 난민귀농안착법천(天) 촌개적단장이일산 |
| 26 | 550906 | 극장시설 완비하라, 관중은 감상보다 고역 | 제주해사국 김요한 |

| | | | |
|----|--------|----------------------------------|-----------------|
| 27 | 550908 | 도서관 세우시지요, 신산(新産) 제주시에의 제청 | 제주시 삼도리 김인규 |
| 28 | 550922 | 씩 꺾는 독재교감 | 모슬포 하모리 KHR생 |
| 29 | 550923 | 제극(濟劇)에 재언 | 해사국 김요한 |
| 30 | 550930 | 무너질까 두렵소, 신축하다만 서농(西農) 교사 | 서귀포 강군황 |
| 31 | 551002 | "한경(韓京)"이 좋겠다, 수도개명에 제언 | 서귀포 강성빈 |
| 32 | 551006 | 중상모략 삼가라, 독재교감 운운에 시비 | 모슬포 鯨頭(경두)생 |
| 33 | 551008 | 학생 오륜(五輪) 대회는 중단되려는가? | 일도리 체육생 |
| 34 | 551019 | 처세적인 체육단, 체(體)의 감투 버리라 | 일도리 체육생 |
| 35 | 551105 | 공정한 과세를, 세무당국에의 제언 | 시내 일유흥장자(一遊興掌者) |
| 36 | 551126 | 농로 확장에 일언 | 동문통 농은거사(農銀居士) |
| 37 | 551215 | 국민교 사친회비(師親會費), 책임제는 자연의 추세 | 제주북국민학교장 백귀남 |
| 38 | 551220 | 인분(人糞) 사용자에 일언 | 삼도2리 일주민 |
| 39 | 560310 | 참다운 정치인 되라 | 용담1동 K생 |
| 40 | 560317 | 객선(客船)엄정운항하라 | 제주 KYY생 |
| 41 | 560401 | 민속 개화 위해 일언 | 일도동 K생 |
| 42 | 560408 | 피난민 총회를 보고 | 일 피난민 생 |
| 43 | 560712 | 고산중 이사진에게 일언 | 고산리 1리 학부형 이민식 |
| 44 | 560823 | 도 사회당국에 일언함 | 시내 일(→) 피난민 |
| 45 | 560831 | 신중도 때 가리다, 구호물품 배정에 일언 | 마소생(마笑生) |
| 46 | 560905 | 순한 자(者) 왜 괴롭히오, 교직원 월급 체불에 일(→)언 | 일도생 |
| 47 | 560911 | 분리(分里) 선동에 넘지말자 | 함덕리 일(→) 청년 |
| 48 | 560921 | 교육사조 어기는 것, 종합대회 폐지에 일언 | 체육생 S |
| 49 | 560922 | 조천면장에게 한마디 | 일(→) 애향생 |
| 50 | 561007 | 특산용자의 실현을 갈망(일부 내용 안보임) | 근로생 현우만 |
| 51 | 561117 | 노임 받게 해주시요 | 고창진 |
| 52 | 561204 | 차는 신설도로를, 남문 교통 위험성에 일언 | 먼지생(교사) |
| 53 | 561218 | 아침 전기를 바람 | 건입동 김영두 |
| 54 | 561219 | 서부 수리조합에 일언 | 고산리 農은 거사 지명철 |
| 55 | 570115 | 빠스회사 전횡에 일언 | 삼도동 H생 |

| | | | |
|----|--------|---------------------------------------|------------------|
| 56 | 570118 | 제대(除嫁)교원검정에 일언 | 서귀포 KSS생 |
| 57 | 570202 | <고망술집>색원하라 | 시내KI생 |
| 58 | 570208 | 당선교육감에게의 진언 | 남구 1 교사 KKT |
| 59 | 570413 | 피아노를 개방하라 | 우고생(愚苦生) |
| 60 | 570515 | 푸 르시설이 약하(溘何) 시(市)의 냉수욕장안에 일언 | 삼도동 K생 |
| 61 | 570526 | 도당국에 일언함-중고교원의 고충(苦衷) | 남약(南鄴)촌락의 일교생 |
| 62 | 570622 | 한심한 이용업태(態) 악취는 질식할 정도 | 이도일동 K·Y·R |
| 63 | 570629 | 왜색음곡은 웬일 극장소리 삼기케하도록 | 칠성동 H생 |
| 64 | 570630 | 아동숙제(兒童宿題)는 알맞게 | 알수없음(자료손상) |
| 65 | 570703 | 남전(南電)의 양식(良識) 바람 | 시내 일도일동 C생 |
| 66 | 570710 | 억망의 회의집행 | 이도리 탐구생 |
| 67 | 570714 | 우리학생의 자각뿐-「교외지도위」란 수치 (羞恥)스런간판 없애자 | 시내 일고교생 K·S·K |
| 68 | 570817 | 전국체육준비 빨리 | 제주시 일도동 고문민 |
| 69 | 571109 | 스피카를 내리시오 기도관이장로(老)에 일언 | 일(-)가정부(婦) |
| 70 | 571124 | 파렴치교직자(者)부터 자숙하라-학풍문란 에 일언 | 시내 일(-)학부형 |
| 71 | 571211 | 문화제결과 밝히라-문충지부에 일언함 | 알수없음(자료손상) |
| 72 | 571218 | 같은대우 해주오 | 대충호 귀국자 고경실 |
| 73 | 580228 | 발표일자 앞당기라-일중입시요령에 일언 | H교 육학년 담임 K생 |
| 74 | 580301 | 십일로 변경수속중-일중합격자 발표일자 | 표기없음 |
| 75 | 580312 | 「정치」에 이용되지 말라-군인관주회에 일언 | 알수없음(자료손상) |
| 76 | 580319 | 이래서 무슨 교육? 너무 심한 교직원 풍기 (風紀) | 사촌의 일(-)학부형 |
| 77 | 580320 | 지망교 강요는 웬일 「입학생청부」가 정말 일까요 | 시내 일(-)학부형 |
| 78 | 580411 | 농로(農路)복구를 호소함 | 일(-)농부 |
| 79 | 580515 | 표식등이라도 달라 사람욕먹이는 하수도공사 | 시내 K생 |
| 80 | 580625 | 맹물같은 「카-피」-업주의 맹성(猛省)을 촉구 | 표기없음 |
| 81 | 580629 | 범람하는 가짜담배-철저한 취제(取締)를 바 람 | 화순리 일(-)애연가 |
| 82 | 580701 | 교통표식을 정확히 | 서귀리 일청년 |

| | | | |
|-----|--------|-------------------------------------|-----------------|
| 83 | 580914 | “조발절단내지말라”-체신(遞信)당국에 제언 | 조천면조천리상동 박석비 |
| 84 | 580920 | 시장운영의 무질서-시당국에 시정을 촉구 | 알수없음(자료손상) |
| 85 | 580924 | 정미소(精米所)뜨게해주오-잡음냄새로 못 배길 지경 | 시내서문통 답답생 |
| 86 | 580927 | 밀조주(酒) 취체(取締)에 제언 | 일도K생 |
| 87 | 581010 | 석연치않은 강의료 남(南)교육구(區)에 묻는다 | 알수없음(자료손상) |
| 88 | 581011 | 교장 선임을 공정히 이사진의 알력(軋轢)을 보고 | 알수없음(자료손상) |
| 89 | 581021 | 농번기(農繁期)를 피하라-청소기간에 제언 | 중문국민학교 교사 오태식 |
| 90 | 581106 | 교원봉급 늦추지말라 | 겨울살이생 |
| 91 | 581107 | 심사에 엄정(嚴正)기(期)하라-교육전시회를 보고 | 시 용담일동 공(公)정생 |
| 92 | 590117 | 단전사태는 웬일-남전(南電)에 무성(無誠)에 항의함 | 알수없음(자료손상) |
| 93 | 590214 | 꼭내야 졸업되니까-중학졸업비용에 일언 | 김녕 농(農)생 |
| 94 | 590327 | 목불인견의 부두변소-청(淸)소와 시설개선을 바람 | 건입동 일 애향생 |
| 95 | 590417 | 극장소리 주려주오 | 제극(濟劇)옆 일 근로자 |
| 96 | 590605 | 정(正)·부(不)당을 밝히라-기성회비 매월 징수 | 일 학부형 |
| 97 | 590614 | 단전 거듭은 웬일-암정(闇燈) 경영의 여파 | 한림읍 SOS생 |
| 98 | 590616 | 부두 가로등 밝히라-사소한 문제로 소등 웬일 | 시내 삼도이동 947 K생 |
| 99 | 590816 | 간판에 사용되는 영철자(英綴字)를 바르게 | 제상(濟商) 삼년 K S H |
| 100 | 590820 | 발표없음은 웬일-도민노래 현상 모집결과 | 용담생 |
| 101 | 590829 | 관광위해 개방하라-관덕정 등 자물쇠에 일언 | 시내 일도일동 애향생 |
| 102 | 591006 | 일상지출을 줄이라-제대 기성회비 과중부담에 학교당국에 일언 | 일 제대생 |
| 103 | 591022 | 동시장(동문시장) 내의 불결한 제피(製皮)공장 철거 바람 | 동문시장 일 상인 |
| 104 | 591111 | 변소없어진동(東)부두-판자집이라도세워라 | 건입동 K생 |
| 105 | 591118 | 시정(是正) 개서(改書)를 바람-사실(史實)과 틀린 고적 소개문 | 고씨 문중회 대표 |

| | | | |
|-----|--------|---------------------------------|-------------|
| 106 | 591119 | 적당한 시기 기다리는 것-제대 기성회비에 학생측 말 | 제대 고(苦)생 |
| 107 | 591127 | 이건웬일?구백80원-가옥 복구 지원비에 일언 | 한림 이(二)리 K생 |
| 108 | 591231 | 극장자리 독점하는 버릇 시정하자 | 삼도 일동 한탄생 |
| 109 | 600120 | 시범적 법(法) 처단 바람-농촌 좁도둑 변성에 일언 | 세화리 일(一)농민 |
| 110 | 600405 | 여름악취이전에!-동시장부근가죽공장의 철거조치를 촉구함 | 시장부근 주민 |
| 111 | 600427 | 피흘린 형제 자매을 구하자 | 제대생 O·T·S |
| 112 | 600512 | 잠자는 스피카 잠깨우라-라디오 촌사업 미진에 일언 | 알수없음(자료손상) |
| 113 | 600514 | 세뇌했다는 실증보이라-소위(所謂) 고관의 일상생활에 일언 | 알수없음(자료손상) |
| 114 | 600518 | 강요된 입당원서 돌리라-관제자유당원의 고언 | 관제당원 K생 |
| 115 | 600921 | 죽림사업에당국시책을 | 애월면 고성리 |